

## 7장 정확하고 개성적인 문체

### <문장>

문장2[文章], [명사] 1 같은 말: 문장가.2 한 나라의 문명을 이룬 예악(禮樂)과 제도. 또는 그것을 적어 놓은 글.3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 이런 것이 생략될 수도 있다. 문장의 끝에 ‘.’, ‘?’, ‘!’ 따위의 마침표를 찍는다. ‘철수는 몇 살이니?’, ‘세 살.’, ‘정말?’ 따위이다.  
--네이버사전

문장(文章)은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이다.  
--위키백과

### 문장(文章) 【명사】

1. 한 줄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글자로 기록해 나타낸 것. 문(文). 글월. 글발. 월.  
㉠ ~ 수업/ ~이 서투르다. 2. ‘문장가’의 준말.㉡ 당대 최고의 ~으로 이름을 날리다.  
---아래아 한글 국어사전

\* 품사: 품사는 기본전제가 단어이어야 합니다.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의 세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 구품사입니다.

: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 관계언(조사), / 용언(동사, 형용사), / 수식언(관형사, 부사), 독립언(감탄사)

\* 문장성분 [文章成分, constituent of sentence]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

: 주어는 문장에서 주체, 주인공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목적어는 문장에서 목적, 대상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서술어는 서술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문장의 성분에는 주성분과 부속성분, 그리고 독립성분이 있다.

주성분: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성분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부속성분: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성분으로,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다.

독립성분: 은 주성분이나 부속성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문장에서 따로 독

\*캐릭터(인물형상화)-기사작성6원칙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뭘(what) 어떻게(how) 왜(why)?)

### <문체>[文體, style]

--필자의 사상이나 개성이 글의 어구 등에 표현된 전체적인 특색 또는 글의 체제.

문체(文體)는 문장의 형태로 구어체, 문어체, 논문체, 서한체, 서사체 등으로 사용한다. 또한, 작가가 개성적인 특색을 발휘한 스타일을 가리켜 말한다. 문체론(文體論)은 언어학과 문예학의 중간 영역에 있기 때문에 다의적이어서 정의하기가 곤란하나, 기로에 의하면 '쓰는 사람 또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본성이나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표현수단의 선택에서 생기는

서술의 여러 가지의 모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고전시학에서 '무엇인지 모를 그 무엇'으로 정의된 문체는 필자의 개성을 나타낸다. 문장은 그 지적 내용(知的內容)이 동일하더라도 정적 내용(情的內容) 및 그것이 주는 인상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생기게 하는 것은 문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문체의 분류에는 일정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으며, 각기 관점에 따라 문체의 종류가 설정된다. 중요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분할 수 있다.

- (1) “글은 곧 사람이다”라는 유명한 말에서 정의되는 유형의 문체, 즉 언어 사용자 성격의 발로로서 문장이 가지는 개성이다. 문체론에 의하여 취급되는 문체는 주로 이러한 의미의 문체이다. 개인을 초월하여 어떤 언어에나 있을 수 있는 시대적인 문체라든지 또는 다른 언어에 대하여 어떤 특정 언어의 문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시대·국민 또는 민족의 성격·시대정신·국민정신·민족심리의 발로로서 문장이 가지는 개성이다.
- (2) 수사학(修辭學)상으로는 ① 길이에 따라 간결체·만연체, ② 글의 느낌(剛柔)에 따라 강건체·우유체(優柔體), ③ 수식의 유무에 따라 화려체·건조체(乾燥體) 등으로 분류된다.
- (3) 특수용도·사용집단에 따라 서간문체·신문문체·법률문체·속어체(俗語體)·아문체(雅文體) 등으로 구분된다.
- (4) 문예양식에 따라 산문체·운문체 등으로 분류된다.
- (5) 문법·어휘의 특징상으로 보아 구어체·문어체·한문체·국한문혼용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예문>

나를 아는 몇몇 사람들은 나를 싸움꾼이라고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싸움꾼이 아니다. 누가 나를 아는 게 싫어서 눈에 짝 띄는 싸움질은 되도록 피했다. - 김려령 『완득이』

땡-땡-땡-땡-땡- 시간을 알리는 패종시계 소리에 신지의 몸이 울린다. 땡-땡-땡-땡- 점점 커져 가는 패종시계 소리에 신지의 몸은 금이 가다가 마침내 부서져 내린다. 시계를 거부하는 뭔가가 신지의 몸을 벗고 밖으로 나가 버린다. - 김진경 『우리들의 아름다운 나라』

열일곱 살이 되는 날 아침, 나는 날이 바짝 선 가위 앞에 앉아야 했다. 아침 내내 솥돌에 무더진 날을 갈리며 풀벌레처럼 울던 가위의 민날은 시퍼렇게 되살아나 입을 꼭 다문 채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위의 두 민날이 내 정수리 위에서 서로 교차하며 머리카락 끝을 양칼지게 자르는 순간, 나는 추운 날 오줌을 쏟아 낸 것처럼 진저리를 쳤다. - 김해원 『열일곱 살의 털』

나는 지금 짝사랑에 빠졌다. 예방접종도 없는 사랑의 열병에 걸린 것이다. 이 고약한 열병이 내 몸과 마음을 시시각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열두 번도 더 유치찬란하고 아리송한 감정들이 었치락뒤치락하며 나를 몰아가고 있다. - 이옥수 『내 사랑, 사복』

내 이름은 비라이마. 나는 뽀디(작은) 니그로(흑인)다. 단지 어리고 까맣다는 사실 때문에

뻘뻘 니그로라고 불리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아마두 쿠루마 『열두살 소령』

아버지가 일을 안 나가니까 동준이는 처음 며칠은 참 좋았다. 아버지와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잘 때도 무섭지 않고. 그러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지면서 아버지는 잔소리가 늘었다. - 김중미 『팽이부리말 아이들』

어머니가 그녀 일을 훔내내어 나를 자주 웃겼던 것도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맨 처음 그녀를 다잡아가면서 안팎 범절과 행실을 가르치고 다스린 이도 할아버지였다. 본디 사람 보는 눈이 달랐던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자 대뜸 짝이 있겠다고 판단하여 나이부터 물었었다. - 이문구 『관촌수필』

걱정이가 어릴 때부터 사납고 심술스러워서 아래위의 앞니가 갓 났을 때에, 무엇에 골이 나서 우는 것을 그 어머니가 “성가시다, 우지 마라.” 하고 꾸짖으며 젖을 물리었더니 걱정이가 젖을 이로 물어서 젖꼭지를 자위가 돌도록 상한 일이 있었고, 불과 너덧살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와 겸상하여 밥을 먹는데 저의 아버지에게만 국그릇을 놓았더니 걱정이가 아무 말도 없이 뜨거운 국그릇을 들어서 저의 앞으로 옮겨놓은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라 “저것이 장래 크면 무엇이 될라노.” “저것이 커서도 저러면 참말 걱정거리다.” 하고 장래를 걱정하는 것이 외조모뿐만 아니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둘이만은 아들이 귀여워서 “사내자식이 그래야지, 계집애 같아서야 무엇에 쓴담.” 하고 걱정은 고사하고 도리어 칭찬하였다. - 홍명희 『임꺽정』

남 얘기는 그만, 실은 나부터가 타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할 만한 주제가 못 되면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작으나마 장사 거리라도 가진 젊은 남자보다는, 나야말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녀석으로 보일 터였다. 말을 더듬기 시작한 것은 사 년 전부터다. 책을 소리 내어 읽을 때는 조금도 망설이는 법이 없고 발음도 새지 않는다. - 구병모 『위저드 베이커리』

아버지는 모래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가방을 뒤집었다. 모래를 방 한 구석에 쏟아놓았다. 10미터 높이의 다이빙대에 간신히 발끝을 디디고 서 있는 사람처럼, 아버지의 낮빛에 공포가 감돌았다. - 김숨 『백치들』

그렇다면 책임을 지려 할 사람은 권위 있는 누구는 아닐 것이다. 선생도 의사도 전문가 어느 누구도 <이것이 그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어떤 경찰도, 경찰 전문의도, 사회 복지가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 도리스 레싱 「다섯째 아이」

녀석은 약에 취해서 허공 속을 헤매고 있었지. 나도 남들처럼 그걸 해보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어떤지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나는 이때만은 그게 좀 비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이 그놈의 약을 탄 우유를 마신 후에 거기 누우면, 주변의 모든 일들이 과거사처럼 생각되지. - 앤서니 버지스 『시계태엽 오렌지』